

나주시, 올해 첫 수확한 나주배 '원황' 대미 수출길

첫 물량 70톤...신화·창조 등 국내육성 품종 수출 앞뒤 "내수가격 안정화·수출 판로 확보에 최선 다해갈 것"

명품 과일 '나주 배'가 올해 첫 미국 수출 길에 올랐다.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9일 나주배 원예농업협동조합과 함께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생종 배 상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물꼬를 튼 배 품종은 나주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원황'(圓黃)이다. 원황은 과즙이 풍부하고 새콤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단맛이 많고 감미가 좋은 국내 육성 품종이다.

수출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70톤으로 올해 수출 목표를 전체 약 2300여톤으로 설정했다.

원황에 이어 '신화', '창조' 등 국내육성 품종 수출을 앞두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배 브랜드 수출포장재', '농산물 수출물류비', '나주배 수출 전문단지 해충포획기' 등 농가 지원사업과 '나주배 수출 전문단지 육성', '해외 판촉행사 개최' 등을 통한 수출 판로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부덕동에 위치한 나주배유통센터 수출선과장에서 윤병태 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만시의회의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백상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광주소장, 지준섭 농협무역 대표이사, 이동



희 나주배원예협동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빨라 수출 일정이 앞당겨졌음에도 적기 수확과 꼼꼼한 선과 작업에 힘써주신 농가, 관계자분

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작년과 달리 저온, 병충해 피해가 적어 생산량이 45%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수가격 안정화, 수출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장성군, '향토음식 메뉴개발 교육' 참여 식당 모집 26일까지 접수...25개소 선발

장성군이 지역 외식업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 향토음식 메뉴개발 교육'에 참여할 관내 식당 25개소를 모집한다.

향토음식 메뉴개발 교육은 변화하는 미식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과 상품화, 상차림 및 위생관리 등을 주 내용으로 다루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총 10회의 집합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완료 시 수료증도 발급된다.

교육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군은 5년 이내 창업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26일까지 장성군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팩스(061-390-7585) 접수하면 된다.

장성=김수권 기자



곡성군,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에 관광홍보관 운영

곡성군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제7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를 통해 곡성군은 대표 관광지인 곡성삼진강기차마을을 포함해 삼진강 침실습지, 압록상상스쿨 등 떠오르는 신규 관광지를 적극 알릴 생각이다.

또한 곡성세계장미축제와 10월에 개최할 심정어린이대축제도 홍보한다. 특히 레저 스포츠 체험, SNS 명소 등 젊고 생동감 있는 곡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젊은층에게 매력을 어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삼진강기차마을을 SNS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풍성'



담양군가족센터(센터장 손순은)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담양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책과 함께하는 전래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가족 자녀 16명이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 내용과 관련

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다양한 전래놀이를 경험했다. 이어서 8월부터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지식을 배우고, 원활한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슬기로운 용돈생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생 대상으로 '탄소중립 환경교육' 4회기를 진행하며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사회

를 위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가족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의 다음세대가 올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은 가족은 담양군가족센터(061-383-3613)로 신청하면 된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 등 섬진강권 4개 시장·군수 통합관광벨트 조성 '맞손'



구례 등 섬진강 하류권 4개 지자체가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에 뜻을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일 구례군에 위치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양시, 곡성·구례·하동군 등 4개 지자체장과 업무 담당 실과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2020년 8월 기록적인 홍수피해를 입은 4개 지자체는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묶고 관광에 있어서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데 뜻을 모으고 2021년 2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곡성·구례·하동군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 개최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계획 공유 및 추진방안 논의

협약에 따라 실무추진단을 즉시 구성하여 지난해 10월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발굴된 사업 중 일부가 문체부가 수립하는 남부권 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에 반영되어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과 별개로 섬진

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포함한 5,500억 원 규모의 '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지역 핵심공약에 선정됨에 따라 문체부에 사업 반영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직후 광양시 정인화 시장, 곡성군 이상철 군수, 구례군 김순호 군수, 하동군 하승철 군수 등 4명은 지자체 추진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결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섬진강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다한다는 내용과 재원 확보 등 대정부 활동에 각 지자체가 공동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례=박진호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